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소액대출회사, 보험상품 판매자격 신청

□ 중국 상하이시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소액대출회사에게 보험겸업대리인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‘상하이시 소액대출회사 발전에 관한 의견서’를 발표함.

- 이번 의견서에는 소액대출회사가 보험겸업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액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담보대출보험과 의외상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.
- 중국 정부의 소액대출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약 20여 개에 달하는 상하이 지역 소액대출회사들은 소액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담보대출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험겸업대리 자격을 신청함.
-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소액대출회사가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액대출 고객에게 소액대출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대출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금의 안전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있음.

□ 지금까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소액대출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나, 소액대출회사의 보험상품 판매가 허가될 경우 소액대출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
- 소액대출회사는 보험상품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액대출회사가 고객에게 차량 혹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보험가입이나 고객을 대신 하여 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.
-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액대출회사가 보험겸업대리 자격을 얻게 되면 은행창구 판매(방카슈랑스)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어 판매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음.
- 업계에서는 이번 상하이시 소액대출회사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, 향후 소액대출회사들의 보험겸업대리 자격 신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음.

(증권시보 3/13)